

1. 수능 문학에 대한 오해

부제:문학이 30분이 넘게 풀어도 틀리는 이유

2.수능 문학에 대한 평가원의 접근법 20분안에 완벽하게 다 맞추는

- 2-1. 그냥 읽고 풀기, 정서잡고 공감하기는 수능 문학이 아니다.
-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 2-3기출은 단순하게 풀고 채점하는 것이 아닌 분석하는 것이다.
- 2-4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3.현대시 접근법

- 3-1.수능은 '주관'을 객관화시킨 시험이다.보기문제, 1번선지 2번선지, 내용문제
- 3-2표현상의 특징은 감이 아닌 기준이다.
- 3-3현대시는 누구든 3분안에 풀 수 있다.

4.고전시 접근법

- 4-1 수능은 배경지식으로 인한 유불리를 최소화시킨다. 고전시가에 대한 기본
- 4-2 고전시가는 한정된 주제성을 강화시킨 시다. 내용문제 전반

5.현대소설접근법

- 5-1. 소설의 정보량은 상대적이다. 5분vs10분(소설의 본질, 내용문제, 읽기방식
- 5-2 수능 소설은 정해진 패턴의 연속이다. \neg, \cup, ab, AB 등 문제유형다루기
- 5-3 수능 소설의 최적의 패턴

6.고전소설 접근법

- 6-1 결국은 소설이다. 그러나 특이점이 존재한다. 고전소설 특화문제유형 및 근본읽기



More than 30 Minutes but not perfect

최근 수능 국어 난이도의 상승으로 국어는 수험생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과목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험지 난이도의 상승만이 아닌 현재 국어 강의에 대한 문제도 크다. 일부 강사들은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며 이미지를 떠올리고 공감하고.. 심지어는 본문에 대한 배경지식을 지도한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방법이다. 물론 이를 통해 근본적인 읽기 능력이 향상되면 점진적으로 상승이 있겠지만 맹목적인 목표와 수능의 본질에 맞지 않는 방식임에 틀림없다. 그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해보려 한다.

주관의 객관화, 평가원의 본질

문학은 본질적으로 작가가 말하고 싶은 생각을 작품의 형식을 빌려 말한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나 영화를 볼 때를 생각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내가 재밌게 본 영화가 평론가의 악평을 받은 영화일 때가 있다. 즉 누군가의 생각은 주관의 영역이며 이를 표현한 문학작품들 또한 주관적인 성향을 띤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수능 시험은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 논쟁의 여지가 일어나선 안되는 공평한 시험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주관'적인 문학이 수능의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수능 문학의 출발점이다. 주관적인 문학을 평가의 요소로 객관화시키는 것. 그것이 평가원의 첫 발걸음이었다. 문학작품을 보고 무수히 많은 생각들 중 출제자는 단 하나의 기준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를 보기를 통해 제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작품의 정보를 판단시킨다. 즉 하나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주관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배제시켰다.

그렇다면 감정에 공감하고 정서를 잡고 제목을 유심히 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가? 내가 작품을 보고 느낀 감정과 출제자가 의도한 감정과 생각들이 일치할 확률이 과연 100%에 수렴할까? 학생들이 답을 하기 쉽게 질문을 바꿔보면 '문학 풀이는 감으로 하는 거야.'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길 바란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말할거다. 왜냐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풀기 때문이다. 그 틀을 깨는 것부터 수능 문학의 시작이다. 철저히 실력과 분석에 기반해 어떤 상황에서도 변수가 없는 풀이를 가르쳐주겠다.

2-1. 그냥 읽고 풀기, 정서잡고 공감하기는 수능 문학이 아니다.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베틀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술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뇨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승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망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삼길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A]

- 정훈, 『탄궁가』 -

(나)

서산에 돌을별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발이 우거졌던고
 ㉣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쾌는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B]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서라
 ㉤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제8수>

- 위백규, 『농가』 -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쾌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2-1. 그냥 읽고 풀기, 정서잡고 공감하기는 수능 문학이 아니다.

☞ EBS해설 : 그렇게 읽으면 틀릴 수밖에 없다.

3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의 '하늘'과 [B]의 '하느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A]의 '하늘 삼길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를 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도 '하느님'이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지, 이를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로 볼 수는 없다.

정답 ㉟

📍 나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 문제는 평가원이 유일하게 직접 해설을 써 놓은 지문이다. 하지만 이 지문의 5번선지가 생각보다 논란이 되었는데 일부 강사들의 해설강의의 설명, EBS해설지와 평가원의 해설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내용중심위주의 판단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평가원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생긴다.

왜냐면 각자의 주관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EBS해설에 대한 고민

강사들과 EBS가 실수한 부분은 b에서 시작된다.

이들의 해설은 b도 예찬하는 어조 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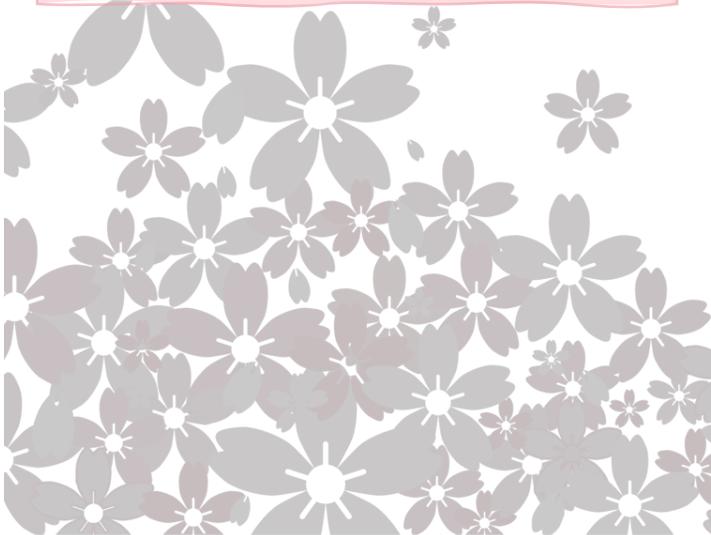
b에 대한 판단을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문장단위의 판단을 했다. 문장단위의 판단이기 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에 평가원과 EBS해설자의 생각이 달라졌던 거다. 국어에 능숙한 해설자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학생들은 과연 어떨까? 게다가 시험장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면 글이 잘 읽힐까?

작품을 보고 들 수 있는 수십가지의 생각 중 그날 수능에서 나랑 평가원의 생각이같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그러니까 문학은 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감이 좋아서 평가원과 나의 생각이 같으면 맞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답을 고르질 못하니까.



2-1. 그냥 읽고 풀기, 정서잡고 공감하기는 수능 문학이 아니다.

평가원의 해설

문학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고전시가 작품에서 형성되는 화자의 말과 행위, 태도의 양상을 인식하고, 이를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의 특징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은 고전시가 작품 두 편의 특정 부분을 [A], [B]로 초점화하여 해당 부분에서 확인되는 화자의 형성화 방식과 그 효과, 의미 등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가)의 [A]에서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늘'을 제시하고 있는데, 작품의 내적 맥락에서 '하늘'은 화자에게 빈천한 운명을 부여하여 수용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존재로서, 체념의 어조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나)의 [B]에서도 초월적 존재인 '하느님'을 제시하고 있는데, 작품의 내적 맥락에서 '하느님'은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들어낸 존재로서, 화자는 이와 같은 '하느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예찬하는 모습을 보인다. [B]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A]에서 확인되는 화자의 말들을 '예찬하는 어조'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A]와 [B] 모두 화자가 대상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다양한 화자들의 특징과 그 효과, 의미 등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화는 '단어'에서 시작한다

이 지문에 적용을 해보자면 5번선지의 사실은 "하늘" "하느님"이고 주관은 "예찬하는 어조"다. 즉 출제자인 나는 하늘과 하느님을 보고 예찬하는 어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라고 물어본거다. 우선 "하늘"의 주변으로 가면 "빈천"과 "궁"이란 단어가 있다. 각각은 가난함에 대한 단어다. 즉 예찬이라는 긍정적인 단어와 정 반대되는 "단어"다 그래서 A는 예찬이라고 볼 수 없다. B는 "하느님"주변부에 "위하여"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즉 주관인 예찬이란 단어와 "날 위하여"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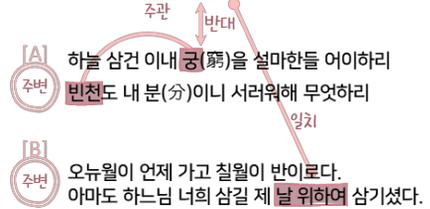
주관의 객관화. 평가원의 판단방식

이제부터 평가원에 기반한 나의 풀이를 보여주겠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평가원은 절대 문장단위 글 단위 판단을 시키지 않는다. 단어가 아닌 문장 단위의 판단이 되어버리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즉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평가원은 단어 위주의 판단을 시킨다 선지는 크게 사실+주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지문에 나온 이 표현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냐? 출제자인 나는 이 표현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거다.

그럼 우린 적절한 선지일 경우 내용위주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실의 주변으로 간다. 만약 주변에 선지의 주관을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선지는 적절하다.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그 주변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거나 선지의 주관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예 없으면 된다

판단방식

⑤[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내 방식은 평가원과 일치한다

A에선 "빈천한 운명을 부여하고 수용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존재로서 표현했 기에 이는 체념적 어조다. 그래서 예찬적어조가 아니라고 해설했다. 즉 판단의 근거가 "빈천"이라는 단어인거다.

B에선 하느님은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들어낸 존재. 즉 판단의 근거가 "날 위하여"라는 단어다. 평가원은 이렇게 단어위주로 선지를 판단시킨다. 그래야만 논쟁의 여지가 없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이의제기를 걸었고 평가원이 문장위주의 판단을 냈다면 어..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네..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러나 선지의 제작과정에서 답의 근거를 단어로써 설계했다면 주관이 개입될 여지. 이의제기의 여지가 사라진다. "자 여기봐 이 단어 선지의 말과 상응하잖아 혹은 반대잖아. 라고 답변하면 된다. 그래서 내용 중심으로 공감하고 정서에 반응하고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다. 평가원은 철저하게 객관화를 시킬테니까.

핵심

평가원은 문장위주, 글위주의 판단이 아니라 '단어'위주의 판단을 시킨다.

적절 사실주변부에 주관과 반대되는 단어 존재

적절X 사실부분의 주변부에 주관과 바뀌질 수 있는 '단어' 존재
사실주변부에 주관을 정당화시킬 단어 X